

광주 신천지 신도 200여명 기침·발열 증상 호소

광주시, 70~80% 조사 진행...자가격리 후 전문 인력 상담토록

연락 닿지 않은 교인 대책 마련...유형별 분석해 결과 공개 예정

광주시가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 2만2880명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조사에 돌입한 가운데 200여명이 기침과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전수조사가 70~80%가량 진행된 가운데 발열 등의 증상을 호소한 신천지 신도는 2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200여명은 대구에 다녀왔거나 확진자와 접촉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기침이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다는 응답자다.

시는 통화 중 목이 아프다거나 증상이 있다고 한 교인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함께 자치구 보건소로 연락해 전문 인력이 상담과 문

진을 하도록 했다.

시는 이날 오전까지 전화통화가 되지 않은 신천지 교인은 전체 응답자의 10% 미만인 것으로 잠정 파악했다.

시는 오후에 다시 연락을 하고 문자를 보낸 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향후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평형 광주시 건강복지국장은 "이날 오후쯤 전수조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면 증상별, 유형별로 분석해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9시쯤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공무원 1000여명이 전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건네받은 신천지 명단을 토대로 전화 조사를 시작했다.

신천지 명단은 2만2880명이다. 시가 애초 광주교회로부터 파악한 2만6715명보다 4000명가량 적고 교육생으로 알려진 5378명도 빠진 수치다.

시는 공무원 1인당 20~30명정도를 배당해 전화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설문은 성명과 생년월일 등 본인 확인에 이어 고위험군 직업 여부를 파악한다. 의료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근무자는 고위험군으로 분류한다.

2월16일을 전후로 신천지 대구교회나 청도 대남병원을 방문했는지, 광주 남구 주월동 센터를 다녀온 적 있는지, 기타 장소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했는지도 확인한다.

발열이나 두통, 인후통 등 증상 여부도 파악한다.

증상이 있다고 응답하면 코로나19 유증상자로 추정돼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보건소 등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을 할 때까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자택에 있도록 권고한다.

증상이 없다고 응답할 경우 고위험군 직업군이면서 자가 격리를 권고하고 2주간 모니터링 진행에 협조를 당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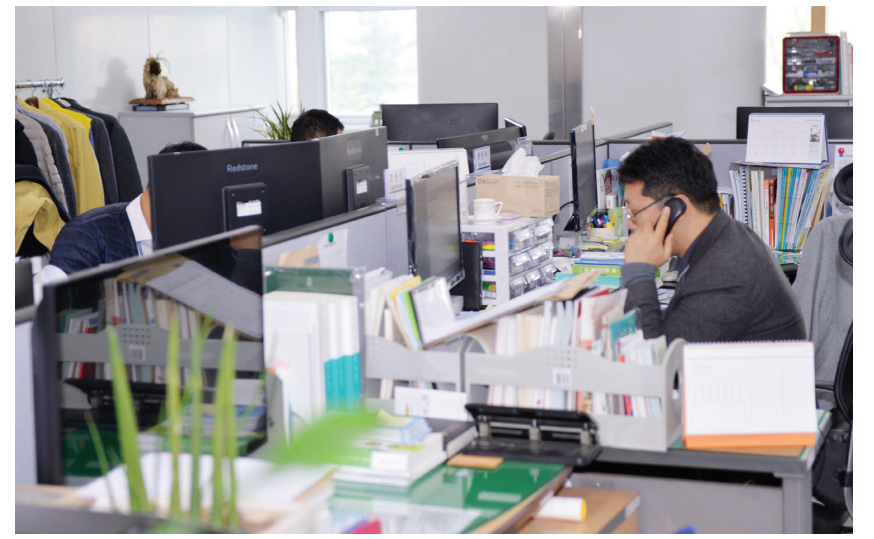
저위험군이면 외출을 삼가고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2주간 전화로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알린다.

가족 중 발열이나 두통, 목아픔 증상이 있는지도 확인한다.

증상이 있을 경우 직접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하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위해 별도 연락할 때까지 자택에 머무르도록 안내한다.

증상이 없다고 응답하면 설문을 종료한다.

설문 결과는 조사표를 통해 일



27일 광주시 건강정책과 직원들이 신천지 광주교회 신도를 대상으로 전화통화를 통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일이 수기로 입력해 취합한다.

조사표에는 명단번호와 인적사항, 고위험군 여부, 2월 중 대구나 청도 대남병원 방문 여부, 2월16일 이후 학습과 방문이나 확진자 접촉 여부, 증상 유무, 가족 증상 유무, 연락 여부, 특이사항 등을 기록하

도록 돼 있다.

2회 이상 통화하고 문자 발송 후 30분이 경과할 때까지 응답이 없으면 연락이 안되는 경우로 처리한다.

시는 신천지 신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각서를 쓰고 명단은 보안 문서로 지급했다.

목포에 119구급차량 수십대 행렬...“코로나19 환자 이송 아니냐?”

국립목포병원에 이틀간 경상도 구급차 40대 도착

국립마산병원 결핵환자 40명 이송으로 확인돼



국립마산병원 결핵환자 40명이 지난 24일과 25일 구급차량을 이용 국립목포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로 인해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옮기는 차량이나는 문의가 쇄도했다.

최근 전남 목포지역에 타 지역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십대의 119 구급차량이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가족이나 코로나19 환산으로 불안한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확진환자가 전남지역으로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가 쇄도했다.

하지만 사실 확인결과 이들은 경남지역 결핵환자들로, 코로나19 확진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를 위해 목포지역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목포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최근 이틀 동안 목포시 석현동 소재 국립목포병원(결핵병원)으로 수십대의 경상도지역 119 구급차량이 도착했다.

주민들은 최근 코로나19 환자 수가 급증하면서 치료시설이 부족해진 대구·경북지역에서 상대적으로 확진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전남지역으로 호송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방역당국에 문의한 결과 지난 24일과 25일 40여명의 국립마산병원의 결핵환자가 국립목포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국립마산병원을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이용하기 위해 결핵환자들을 긴급히 목포국립병원으로 옮긴 것이다.

전남에서는 나주에서 거주하는 22명 확진환자가 지난 17일 퇴원한 후 현재까지 추가 확진환자는 없는 상황으로 상대적으로 병실의 여유가 있는 편이다.

전남도는 현재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비해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의료원 3곳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의 환자를 타 병원으로 옮기고 190여개의 병실을 확보했다.

목포=박정수 기자

‘대구 방문’ 광주 신천지 신도 자가격리 중 도심 활보...수사 의뢰

신천지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지역 신천지 교인이 자가격리 조치 중 무단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보건당국이 수사를 의뢰했다.

27일 광주 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1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이던 A씨(30대 초반)가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서구 쌍촌동 자택에서 나와 인근 헬스장과 광산구 수완동 음식점 등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예배를 다녀와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됐다.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았다.

31번 확진자가 예배에 참석한 날 대구교회를 다녀온 광주 교인 총 11명으로 이중 4명이 양성, 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택에서 격리 중이던 A씨는 보건당국에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차례 외부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다. 잠복기 14일을 고려할 때 A씨의 자가격리 해제일은 3월2일이다.

A씨는 전날 자신의 자택에서 나

온 후 택시를 타고 수완동으로 향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인데 답답해서 비탈을 쏘러 나왔다”고 했고 택시기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A씨가 자택 인근 헬스장에도 방문하는 등 여러 차례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자가격리 중 인만큼 비대면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한 후 A씨 격리가 해제되면 소환 조사를 진행, 감염병의 예방 및 예방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을 적용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법이 적용되면 A씨는 자가격리 지침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처분을 받게된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코로나3법(검역법·감염병 예방법·의료법 개정안)’은 자가격리 조치 위반 처벌을 강화해 기존 300만원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A씨는 개정안이 아직 시행되지 않은만큼 벌금 부과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호남신문 ☎ 062)229-6000 팩스 062)222-5547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